



즉시 배포용: 9/22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속죄일에 즈음한 **ANDREW M. CUOMO** 지사의 성명서

“욥기푸르는 유대인들의 속죄일로서 대체일들의 절정입니다. 이 날은 지나간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. 누군가에게 행복한 휴일을 빌기 보다는 이 날의 엄숙한 성격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쉽고 의미있는 금식을 비는 것이 전통입니다.

“나팔질 때에 본인은 티쿤올람의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고, 고치고 변혁할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. 이 반성의 날에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짐이 다가오는 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비록 우리의 신앙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뉴욕주민들은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묶는 공통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선을 위해 집합적으로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입니다. 우리는 다양하지만 – 우리의 다양성은 뉴욕주를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.

“모든 뉴욕주민들을 대표하여 본인은 이 날을 지키는 분들께 기도와 반성의 의미있는 날과 쉬운 금식을 기원합니다.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인봉되기를(Gmar Chatima Tova)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